2025.12.03

아스테라시스 (450950)

‘쿨(Cool)’한 성장이 기대된다

HIFU(초음파), RF(고주파) 전문 미용의료기기 업체

아스테라시스는 2015년 설립된 미용의료기기 업체로, HIFU(초음파) 및 RF(고주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피부 미용 기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동사는 초기 주력 HIFU 제품 ‘리프테라’를 중심으로 미용기기 시장에 진출한 이후, 최근에는 냉각 기술을 접목한 HIFU 제품인 ‘쿨소닉’과 RF 제품 ‘쿨페이즈’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투자포인트①. 신제품 출시 효과에 따른 제품매출 상승 및 믹스 개선

신규 프리미엄 라인업 출시 속 동사의 실적은 시장 예상치 기준 2025년 매출액 404억원(+40.3% YoY)/영업이익 127억원(+91.3%)의 고성장이 기대된다. 올해 2분기 국내 출시된 HIFU 기기 ‘쿨소닉’은 기존 주력 제품 ‘리프테라’ 대비 ASP가 2배 높으며, 원가율은 20% 수준으로 기존(리프테라 약 30%) 대비 낮다. 이에 동사는 3Q25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매출 부진(87억, -15.3% QoQ)에도 불구 역대 최대 GPM(80%)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그림5].

투자포인트②. 2026년 북미시장 진출 가시화 및 성공적 EM시장 진출

동사는 미국 시장 진출 가시화와 함께 2026년 시장예상치 기준 매출액 598억원(+47.8 YoY)/영업이익 253억원(+98.4% YoY)의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신규 RF 장비 ‘쿨페이즈’는 이미 2025년 10월 미 FDA 승인을 획득했으며, HIFU 장비 ‘쿨소닉’은 2026년 중순 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시장 진출 제약 요인 중 하나였던 경쟁제품(울세라, 인모드)의 미국 내 주요 특허가 2026년 대부분 만료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선제적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할 ‘쿨페이즈’는 보다 강한 피부 개선 효과를 요구하는 소비자층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쿨페이즈’는 Mono-Polar(단극성) RF 장비로, 현재 미국 RF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인모드(Bi-Polar(양극성) RF) 대비 더 강한 리프팅 효과를 제공하나 더 큰 통증을 유발한다. 다만 동사는 DCC(Direct Cooling Conduction) 냉각기술을 통해 해당 단점을 충분히 개선했다[그림9].

투자포인트③. 소모품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

미용기기 사업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제품 침투 이후의 소모품 Lock in 효과이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동사의 소모품 매출비중은 62% 수준이며, 2022년 이후 소모품 매출액은 연평균 35.5%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그림12].

RF 장비 ‘쿨페이즈’의 침투 확대 이후 소모품 매출 수익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RF 장비의 소모품(팁)은 일회용으로, 다회 사용이 가능한 HIFU 장비(리프테라)의 카트리지 대비 회전율이 빠르고, 원가율 역시 더 낮다.

Valuation: 2026년 기준 23.2배, Peer Group 평균 19배

동사의 현재 주가는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R 23.2배로, 동종업계 평균(19배) 및 업종 대표주 클래시스(21.3배) 고려 시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지 않다[그림13]. 단기 주가 고점은 2025년 초 상장 이후 밸류에이션 밴드(20~30배) 상단인 PER 30배 수준으로 판단된다[그림15]. 향후 밸류에이션 핵심 변수는 미국 시장 내 성공적 진출 여부이다. 2026년 하반기 이후 동사의 주력 제품 라인업 ‘쿨소닉’, ‘쿨페이즈’의 미국 시장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익추정치 상향과 멀티플 리레이팅이 기대된다.

iM증권

Company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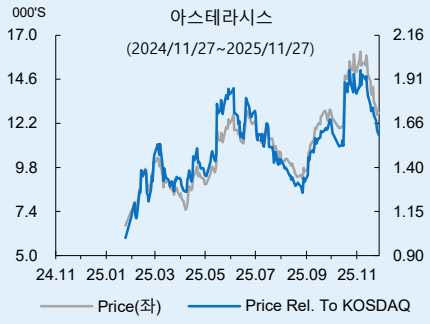
NR

액면가	**100원**
종가(2025.12.02)	**13,660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3십억원
발행주식수	3,751만주
시가총액	478십억원
외국인지분율	1.6%
52주 주가	6,640~16,100원
60일평균거래량	433,331주
60일평균거래대금	6.4십억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5.5	38.7	6.2	92.0
상대수익률	-12.9	29.0	-14.9	64.8

Price Trend



FY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억원)	141	156	175	288
영업이익(억원)	25	18	16	67
순이익(억원)	21	12	9	54
EPS(원)	355	40	29	173
BPS(원)	709	912	225	600
PER(배)	-	-	-	-
PBR(배)	-	-	-	-
ROE(%)	100.2	25.0	14.3	40.6
배당수익률(%)	-	-	-	-
EV/EBITDA(배)	-	-	-	-

주: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Mid-Small Cap]
신희철 2122-9187 shc4235@imfnsec.com

기업개요: HIFU(초음파), RF(고주파) 전문 미용의료기기 업체

HIFU(초음파), RF(고주파) 미용기기 전문 업체

아스테라시스는 2015년 설립된 미용의료기기 업체로, HIFU(초음파) 및 RF(고주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리프팅 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초기 동사의 주력 HIFU 제품 '리프테라'를 중심으로 미용기기 시장에 진출한 이후, 최근에는 냉각 기술을 접목한 HIFU 제품인 '쿨소닉'과 RF 제품 '쿨페이즈'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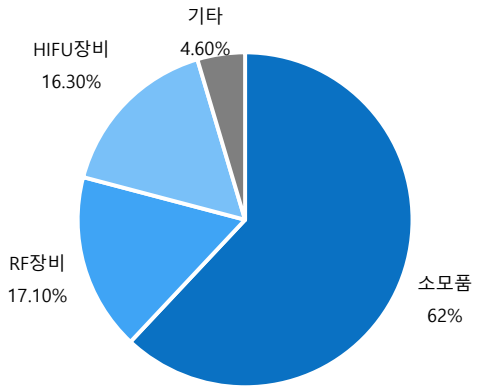
2015년~2024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5%를 기록하며 외형확대 지속

2016년 '리프테라' 런칭과 함께 국내 미용기기 시장 진입 이후, 2020년 말레이시아, 유럽, 브라질, 2023년 태국에 진출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이에 현재 동사의 해외 매출 비중은 70%에 달하며, 2015년 창사 이래로 2024년까지 단 한 번의 역성장 없이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5%를 기록하며 외형 확대를 지속해왔다[그림3].

기존 주력 제품 '리프테라' 이후 신제품 '쿨소닉'과 '쿨페이즈'를 통한 실적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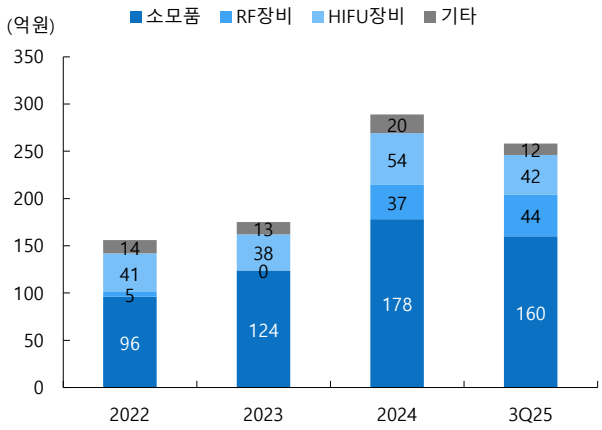
동사는 성숙기에 접어든 기존 주력 HIFU 제품 '리프테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소모품 매출 확대와 더불어 신제품 '쿨소닉'(HIFU)의 성공적인 국내 런칭, 글로벌 시장에서의 '쿨페이즈'(RF) 수요 확대 속 디바이스 매출 증가 역시 나타나고 있다. 2025년 3분기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및 매출액 비중은 소모품 160억원(62%), RF장비 44억원(17.1%), HIFU장비 42억원(16.3%), 기타 12억원(4.6%) 순서이다[그림1,2].

그림1. 아스테라시스 3Q25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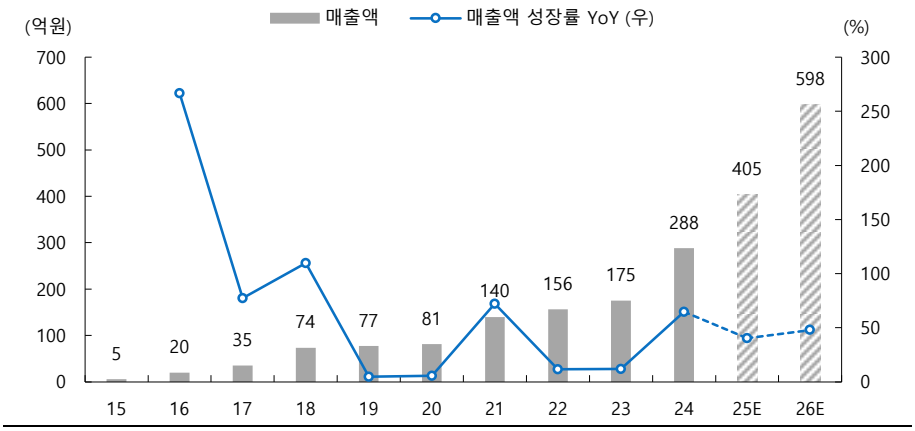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아스테라시스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자료: 아스테라시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2015~2024 아스테라시스 매출액 및 매출액 성장률 추이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아스테라시스 2022~2025년 실적 테이블 전망치

(단위: 억원)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E	2022	2023	2024	2025E
매출액	35	78	68	107	67	103	87	147	156	175	288	405
YoY 증감률			55%	106%	90%	32%	29%	38%	11%	12%	65%	41%
QoQ 증감률	-32%	122%	-14%	58%	-37%	54%	-15%	68%				
Device					20	43	23	61	47	38	90	147
YoY 증감률											137%	64%
의료기기 소모품					45	59	57	83	100	124	177	243
YoY 증감률											43%	38%
기타					2.5	2.2	6.3	3.1	6.0	13.0	20.0	14.1
YoY 증감률											54%	-29%
매출원가	11	22	19	27	14	25	18	33	51	45	79	89
매출원가율	32%	28%	28%	25%	21%	24%	20%	22%	33%	26%	28%	22%
매출총이익	24	56	48	80	53	79	70	115	105	129	208	316
매출총이익률	68%	72%	72%	75%	79%	76%	80%	78%	67%	74%	72%	78%
판매비 및 관리비	33	32	34	43	47	40	47	54	87	114	142	188
판관비율	95%	41%	50%	40%	70%	39%	54%	37%	56%	65%	49%	47%
영업이익	-9	24	15	37	6	38	23	60	18	15	67	128
영업이익률	-27%	31%	22%	35%	9%	37%	26%	41%	11%	9%	23%	32%
YoY 증감률			224%	191%	-163%	57%	58%	63%	-30%	-12%	332%	91%
QoQ 증감률	적전	흑전	-40%	153%	-84%	538%	-40%	162%				
세전이익	-10	19	11	42	6	34	27	61	12	7	63	128
당기순이익	-11	17	10	37	5	29	19	56	12	9	53	110
당기순이익률	-30%	22%	15%	34%	8%	28%	22%	38%	8%	5%	19%	27%
YoY 증감률			312%	230%	-150%	72%	84%	54%	-44%	-27%	521%	106%
QoQ 증감률	적전	흑전	-40%	255%	-86%	455%	-35%	196%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투자포인트①. 수익성, 기능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신제품

ASP 및 수익성 개선이 모두 이뤄진 신규 프리미엄 라인업

ASP 및 수익성 개선이 모두 이뤄진 신규 프리미엄 라인업

신규 프리미엄 라인업 출시 속 동사 실적은 시장 예상치 기준 2025년 매출액 404억원(+40.3% YoY)/영업이익 127억원(+91.3%)의 고성장이 기대된다. 동사는 2024년 Mono-polar RF 기기 '쿨페이즈'에 이어 2025년 4월 신규 프리미엄 HIFU 라인업인 '쿨소닉' 국내 출시와 함께 제품 매출 증가 및 믹스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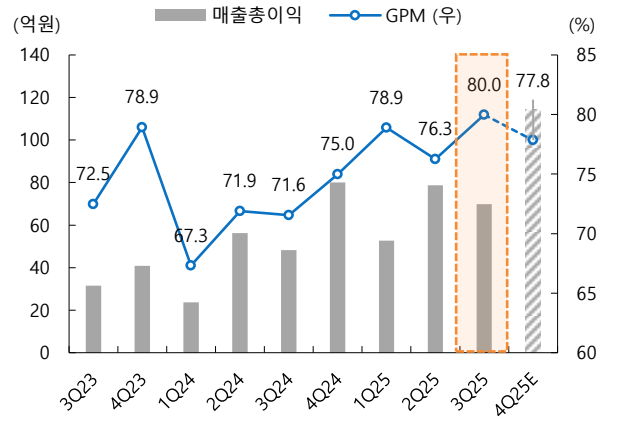
'쿨소닉'의 ASP는 '리프테라' 대비 약 2배, 성공적인 국내시장 런칭

3분기 동사의 매출액은 비수기 속 87억원(-15.3% QoQ)의 부진한 성과를 보였음에도 역대 최대 매출총이익률 80%를 기록[그림5]하며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매출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개선된 점은 신규 제품 '쿨소닉'의 성공적인 국내 런칭에 기인한다. '쿨소닉'은 기존 주력 HIFU 제품 '리프테라' 대비 판가는 약 2배 높으며, 원가율은 20% 수준으로 기존(리프테라 약 30%) 대비 개선되었다. '쿨소닉'은 3분기 37대 판매되며 출시 이후 2분기만에 기존 주력 제품인 '리프테라' 매출을 추월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해외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신규 RF 장비 '쿨페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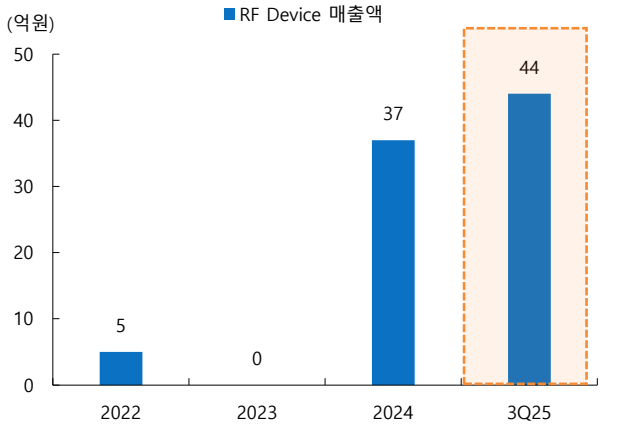
신규 RF 디바이스 '쿨페이즈'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국내 및 브라질에서 '쿨페이즈' 판매를 시작하면서 동사는 2023년 대비 65%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3분기 누적 기준 RF 디바이스 부문의 매출액은 44억으로 이미 작년 연간 RF 디바이스 매출액 37억을 넘어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그림6].

그림5. 수익성이 개선된 신규 프리미엄 HIFU 장비 '쿨소닉'의 성공적인 런칭과 함께 역대 최대 GPM 기록



자료: 아스테라시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쿨페이즈' 판매 호조 속 3Q25 누적 RF 디바이스 매출액은 이미 2024년 연간 RF 디바이스 매출액을 넘어서는 성과



자료: 아스테라시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차별화된 냉각기능을 통해 통증 개선을 이뤄낸 '쿨소닉'과 '쿨페이즈'

냉각 기술에서의 강점을 보유한 '쿨소닉'과 '쿨페이즈'

HIFU 및 RF 미용기기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시술시 통증이다. 두 방식 모두 종류만 다를 뿐 에너지를 피부 내 침투시켜 피부 개선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 과정에서의 발열은 불가피하게 시술자의 통증을 유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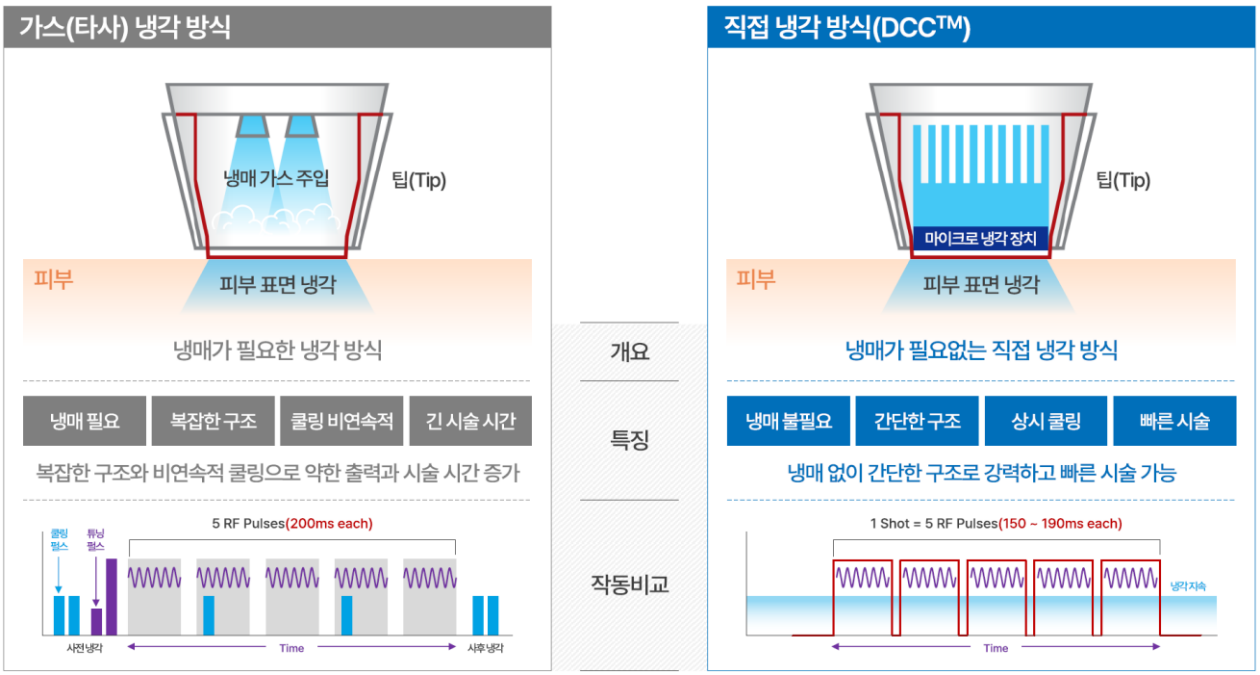
냉각 마취효과에 따른 통증개선은 시술시간 단축과 리프팅 극대화 효과로 연결

동사가 신규 출시한 '쿨소닉'은 세계 최초로 냉각 기술을 추가한 HIFU 장비로, 시술 시 발열에 따른 통증을 크게 개선했다. 이에 경쟁사 제품 대비 더 높은 출력의 에너지를 조사할 수 있어 시술 시간 단축과 리프팅 극대화 효과를 모두 챙겼다. 대표적인 HIFU 장비 '울세라'는 통증 제약 속 0.7J~1.0J 사이의 출력에서 시술을 진행하며 수면마취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사 '쿨소닉'은 1.5J의 고출력 에너지로 시술을 하더라도 통증이 거의 없다.

DCC기술을 통해 연속적인 쿨링 효과를 제공하는 '쿨페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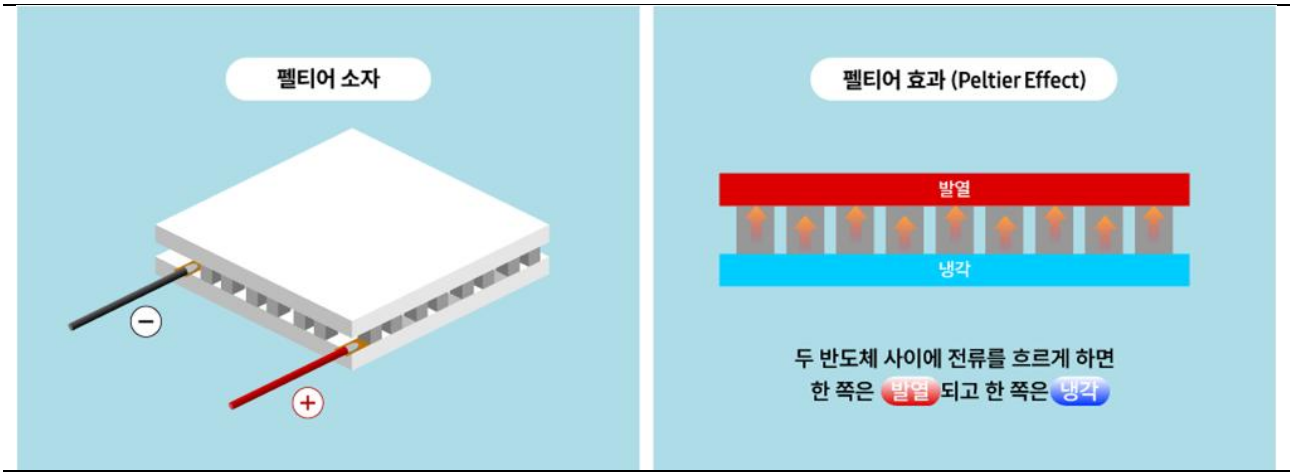
동사 Mono-polar RF 장비인 '쿨페이즈' 역시 타사 대비 냉각 기능에서의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쿨페이즈'는 펠티어 소자(열전소자)를 통한 DCC(Direct Cooling Conduction) 기술을 적용[그림8], ①냉매가 필요없는 직접 냉각 방식을 사용하며, ②연속적인 쿨링 효과를 제공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가스 냉각 방식의 경우 냉매 가스가 분사되는 순간에만 냉각이 이뤄어져 냉각 효과가 불연속적이고 시술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그림7].

그림7. 아스테라시스의 DCC(Direct Cooling Conduction) 장점 및 타사 가스냉각 방식과의 차이점



자료: 아스테라시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8. 쿨페이즈 DCC(Direct Cooling Conduction)에 사용되는 펠티어 소자의 냉각 원리



자료: 삼성전자, iM증권 리서치본부

투자포인트②. '26년 북미 시장 진출 가시화 및 성공적 EM시장 진출

2026년 이후 미국 시장 진출 가시화

2026년 이후 FDA 승인과 경쟁사 특허만료 속 미국시장 진출 본격화

미 FDA 승인 및 경쟁사 특허 만료 시점이 겹치는 2026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미국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동사는 시장 예상치 기준 2026년 매출액 598억원(+47.8 YoY)/영업이익 253억원 (+98.4% YoY)의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

'쿨페이즈'는 미 FDA 승인 완료, '쿨소닉'은 2026년 중순 FDA 허가 목표

동사는 이미 2025년 10월 RF 장비 '쿨페이즈'의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으며, 올해 출시한 HIFU 장비 '쿨소닉'은 2026년 중순 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FDA 승인 외 미국 시장 진출 제약 요인은 경쟁사의 특허 만료 기한이다. 다만 현재 미국 시장 내 HIFU 장비와 RF 장비를 장악하고 있는 울세라(HIFU), 인모드(RF)의 주요 특허 역시 2026년 대부분 만료될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미국 시장 내 RF 장비는 Bi-Polar 방식으로 동사 제품과의 차이 존재

결국 FDA 승인이 완료된 '쿨페이즈'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선제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동사 '쿨페이즈'는 Mono-Polar(단극성) RF 장비로, 현재 미국 RF 미용기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인모드(Bi-Polar(양극성) RF 장비) 대비 용도 및 성능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시장 침투가 충분히 가능하다.

강한 피부개선 효과를 요구하는 소비자층을 공략 가능할 것

'쿨페이즈'는 미국 시장 내 더 강력한 피부 개선 효과를 요구하는 새로운 소비자층을 공략할 것으로 판단된다. Mono-Polar RF장비는 Bi-Poloar RF장비 대비 높은 열에너지를 피부 깊숙히 조사함으로써 피부 타이트닝 효과가 뚜렷하나, 그만큼 더 강한 통증을 유발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쿨페이즈'는 DCC(Direct Cooling Conduction) 방식을 통한 냉각 기능을 통해 시술 시 통증이라는 단점을 크게 개선했다[그림9].

그림9. Mono-Polar RF 장비 및 Bi-Polar RF 장비 차이

구분	모노폴라 RF (Monopolar)	바이폴라 RF (Bipolar)
전극 형태	팁 1 개 + 신체 부착 패드	팁 내에 2 개 전극 존재
에너지 강도	강함 (고출력)	약함 (표면 집중)
침투 깊이	깊음 (진피층 하부~피하지방)	얕음 (표피~진피 상부)
주요 효과	강력한 타이트닝, 윤곽 개선	피부결 개선, 잔주름 완화
통증	강함 (수면 마취 케이스 존재)	약함
대표 장비	쿨페이즈, 써마지, 올리지오	인모드

자료: 아스테라시스,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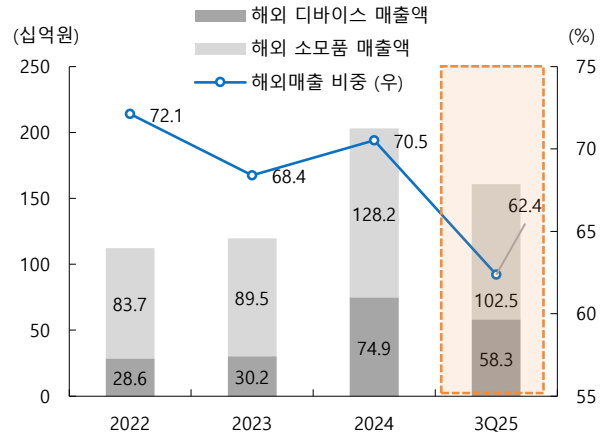
EM 시장의 성공적 진출 속 동사의 해외매출 비중은 2024년 70%대까지 확대

EM(브라질, 동남아) 미용기기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

EM 시장 중심으로의 성공적 진출 속 동사의 해외 매출액은 2024년 203억원(+69.6% YoY)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그림10]. 동사는 2020년 말레이시아, 브라질을 시작으로 2024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매출처를 글로벌 EM 시장 중심으로 확대하며 2024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70%까지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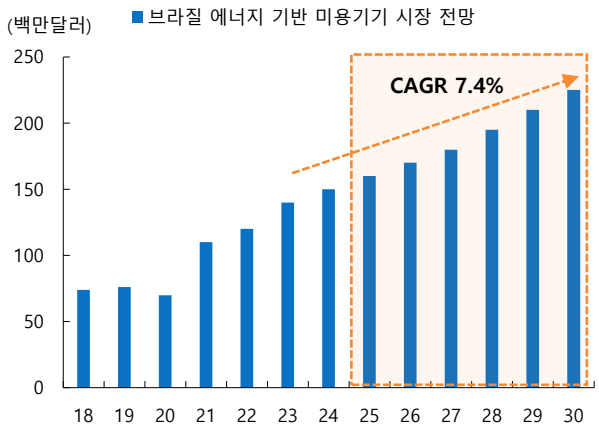
특히 2024년에는 전세계 4위, 8억달러 의료 미용기기 시장을 보유한 브라질에 신규 RF 장비 '쿨페이즈'를 성공적으로 런칭했다.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브라질의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 시장은 2025년 이후 연평균 7.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11].

그림10. 꾸준한 EM 시장 공략의 성과로 2024년 기준 동사의 해외매출 비중은 70%대까지 확대



자료: 아스테라시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1. 2024년에는 전세계 4위, 연평균 7.4% 성장율의 미용기기 시장인 브라질에 신규 RF장비 '쿨페이즈'를 성공적으로 런칭



자료: Grandview Horizon, iM증권 리서치본부

투자포인트③. 소모품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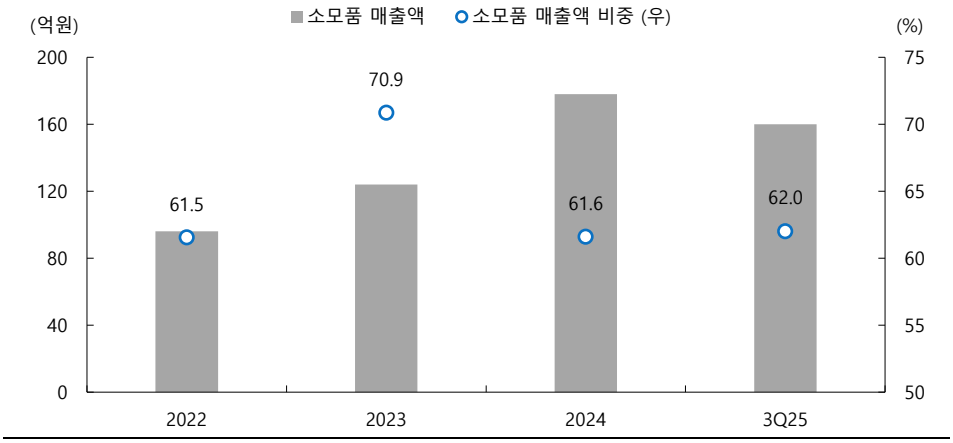
동사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맡고 있는 소모품 매출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동사의 소모품 매출비중은 62% 수준으로, 소모품 매출액은 2022년 이후 연평균 35.5%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그림12]. 미용기기 사업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제품 침투 이후의 소모품 Lock in 효과이다. 현재 주력 제품인 '리프테라'의 누적 판매량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카트리지 교체 수요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모품의 원가율은 약 20%으로 제품 대비 수익성 역시 높다.

신제품 매출 증가시 소모품 매출 수익성 및 판매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것

신제품 침투율 증가시 소모품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 ①HIFU 장비 신제품 '쿨소닉'의 카트리지(소모품) 원가율은 10% 수준으로 기존 주력 HIFU 제품 '리프테라'의 원가율(약 20%) 대비 수익성이 높다. ②또한 RF장비 '쿨페이즈'의 소모품 팁의 경우 일회용으로,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HIFU 장비 소모품 카트리지 대비 회전율이 높다. 결과적으로 동사의 신제품 판매량 증가는 소모품 수요의 절대량 증가뿐만 아니라 이익률 상승을 동시에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12. 2022~3Q25 아스테라시스 소모품 매출액 및 비중



자료: 아스테라시스, iM증권 리서치본부

Valuation: 2026년 기준 23.2배, Peer Group 평균 19배

2026E EPS 9.1배, 동종업계 평균 10.9배 대비 Valuation 메리트 충분

동사의 현재 주가는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R 23.2배로, 동종업계 평균 PER 19배, 국내 HIFU, RF 시장 대표 기업 클래시스 PER 21.3배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지 않다[그림13]. 다만 과거 주가 추이를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밴드 상단인 30배[그림15]까지는 주가 상방이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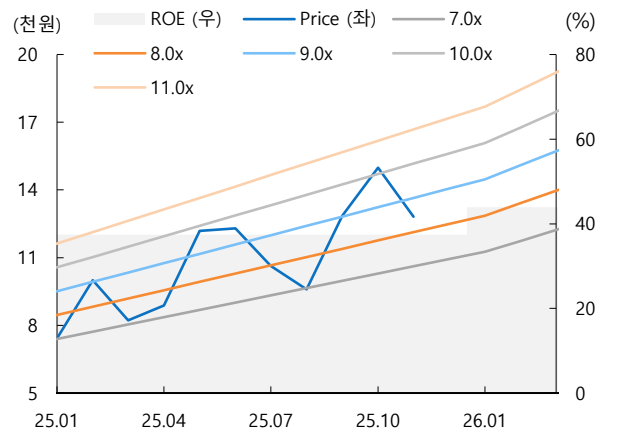
향후 밸류에이션의 핵심 변수는 2026년 이후 미국 시장 내 성공적 진출 여부이다. 동사의 RF 장비 '쿨페이즈'는 이미 2025년 10월 미 FDA 승인을 마친 상태이며, HIFU 장비 '쿨소닉'은 2026년 하반기 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동사의 주력 제품 라인업의 미국 시장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익추정치 상향과 함께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3. 아스테라시스 및 국내 Peer Group Valuation

종목명	주가	시가총액	매출액			PSR			PER			PBR		
			24	25E	26E	24	25E	26E	24	25E	26E	24	25E	26E
아스테라시스	13,340	500	29	40	60	17.4	12.4	8.4	93.5	45.5	23.2	25.5	12.6	8.3
클래시스	58,600	3,839	243	341	454	15.8	11.2	8.5	39.2	29.8	21.3	8.5	6.9	5.3
비올	12,500	730	58	-	-	12.5	-	-	22.4	-	-	8.2	-	-
원텍	7,610	685	115	158	187	5.9	4.3	3.7	23.5	14.9	12.5	5.4	4.0	3.2
Peer Group Avg.						12.9	9.3	6.8	44.7	30.1	19.0	11.9	7.8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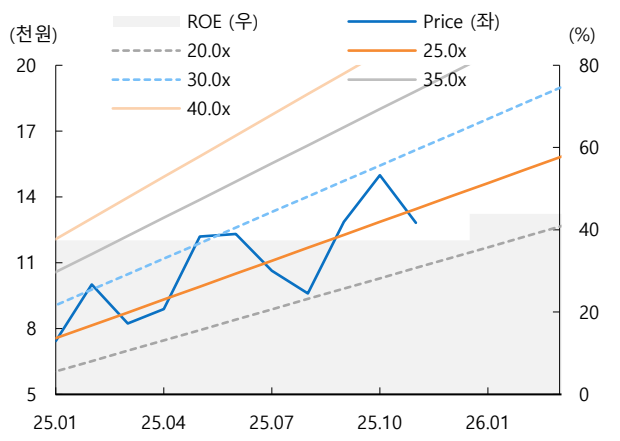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주1: 아스테라시스 및 Peer Group Valuation은 Quantiwise 추정치 기준

그림14. 아스테라시스 12개월 선행 PBR Band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5. 아스테라시스 12개월 선행 PER Band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유동자산	90	105	113	19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4	44	36	61
단기금융자산	-	-	-	-
매출채권	17	20	21	73
재고자산	42	36	48	43
비유동자산	30	40	53	57
유형자산	18	28	39	39
무형자산	1	0	0	0
자산총계	120	146	166	247
유동부채	77	87	95	48
매입채무	6	6	7	8
단기차입금	10	10	10	10
유동성장기부채	36	43	49	7
비유동부채	1	4	4	3
사채	-	-	-	-
장기차입금	-	-	-	-
부채총계	77	91	99	51
지배주주지분	42	55	67	196
자본금	30	30	30	33
자본잉여금	43	43	43	104
이익잉여금	-30	-18	-9	44
기타자본항목	-	-	-	-
비지배주주지분	-	-	-	-
자본총계	42	55	67	196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141	156	175	288
증가율(%)	-	11.1	12.0	64.8
매출원가	43	51	45	79
매출총이익	97	105	130	209
판매비와관리비	72	87	114	142
연구개발비	11	16	26	26
기타영업수익	-	-	-	-
기타영업비용	-	-	-	-
영업이익	25	18	16	67
증가율(%)	-	-28.9	-12.7	328.6
영업이익률(%)	17.8	11.4	8.9	23.1
이자수익	0	0	0	0
이자비용	6	7	9	6
지분법이익(손실)	-	-	-	-
기타영업외손익	1	1	1	1
세전계속사업이익	25	13	7	63
법인세비용	4	1	-1	9
세전계속이익률(%)	17.9	8.1	4.2	21.8
당기순이익	-	-	-	-
순이익률(%)	-	-	-	-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21	12	9	54
기타포괄이익	-	-	-	-
총포괄이익	21	12	9	54
지배주주귀속총포괄이익	21	12	9	54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영업활동 현금흐름	15	36	15	44
당기순이익	-	-	-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0	10	14	16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지분법관련손실(이익)	-	-	-	-
투자활동 현금흐름	-4	-10	-16	-13
유형자산의 처분(취득)	5	-	-	-
무형자산의 처분(취득)	0	0	0	0
금융상품의 증감	-	-	-	-
재무활동 현금흐름	-4	-5	-6	-6
단기금융부채의증감	-	-	-	-
장기금융부채의증감	0	0	0	-
자본의증감	-	-	-	0
배당금지급	-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8	20	-7	2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6	24	44	36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4	44	36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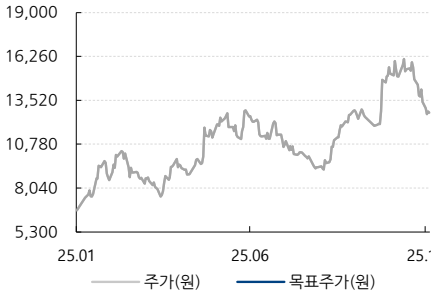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주당지표(원)				
EPS	355	40	29	173
BPS	709	912	225	600
CFPS	527	76	75	224
DPS	-	-	-	-
Valuation(배)				
PER				
PBR				
PCR				
EV/EBITDA				
Key Financial Ratio(%)				
ROE	100.2	25.0	14.3	40.6
EBITDA이익률	25.1	18.3	16.8	28.6
부채비율	182.6	167.2	147.1	25.9
순부채비율	51.0	17.6	33.1	-22.6
매출채권회전율(x)	16.8	8.5	8.6	6.2
재고자산회전율(x)	6.7	4.0	4.2	6.4

자료 : 아스테라시스, iM증권 리서치본부

아스테라시스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25-12-03	NR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 이상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2025-09-30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91%	8.3%	0.7%